

김현우, 판정논란속 값진 '동메달'

남탁구 단체전 4강행
女배구, 조 3위로 8강행



한국 레슬링 김현우가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리오카 아레나2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 시상식을 끝내고 식사를 하고 있다.

남자 레슬링의 김현우(28·삼성생명)가 판정 논란을 딛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현우는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2에서 열린 대회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5kg급 동메달결정전에서 크로아티아의 보조 스타르체비치를 6-4로 제압했다.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김현우는 1피리어드 1분10초 만에 얻어낸 패시브에서 옆골리기 기술을 성공시키며 2점을 먼저 따냈다.

위기도 있었다. 1피리어드 종료 30여초 전 스타르체비치에게 연달아 옆골리기를 허용하며 순식간에 4점을 빼앗겼다.

잠시 숨을 돌리고 2피리어드에 들어선 김현우는 더욱 힘을 냈다.

스탠딩 상황에서 4점을 쓸어담으며 6-4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김현우는 마지막까지 2점 차 리드를 지키며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기를 마친 김현우는 매트 위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2012런던올림픽 66kg급에서 정상에 올랐던 김현우는 체급을 올려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만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인해

애초 목표로 했던 올림픽 2연패는 달성하지 못했다.

김현우는 16강전에서 로만 블라스프(러시아)에게 5-7로 졌다.

2-6으로 뒤져 있던 그는 경기 종료 30여초를 남기고 패시브를 얻어 가로들기 기술을 성공시켰지만 심판은 2점만 부여했

다.

이 기술은 4점짜리다. 기술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판정이 나왔다면 김현우는 7-6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경기 후 한국 선수단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세계레슬링연맹(UWW)에 제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남자탁구대표팀은 단체전 8강전에서 스웨덴을 게임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1회전에서 브라질을 게임스코어 3-0으로 완파한 한국은 스웨덴까지 잠재우고 4강 무대에 올랐다.

한국 남자탁구는 단체전이 도입된 2008 베이징올림픽부터 2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동메달,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냈다.

4강행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남자탁구는 16일 오전 3시 세계 최강 중국과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한국 여자배구는 조별예선 3위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카메룬(랭킹 28위)과의 여자배구 A조 조별예선 5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0(25-16 25-22 25-20)으로 이겼다.

4차전 종료 후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은 조별예선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3승2패(승점 9)를 기록했다. 브라질과 러시아에 이어 조 3위로 8강에 올랐다.

조별예선은 6개 팀씩 2개 조로 구성됐는데 각 조 4위까지 8강에 진출한다. 이때 각 조 1위 팀은 상대 조의 4위 팀과

8강전을 치르고 각 조 2~3위는 다른 조 2~3위와 추첨을 통해 8강 상대를 정한다.

A조 3위인 한국은 B조 2위 네덜란드(랭킹 11위)나 3위 세르비아(랭킹 6위) 가운데 한 팀과 8강전을 치른다.

1976몬트리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 여자배구는 이번 대회에서 40년 만의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신화를 꿈꿨던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은 조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핸드볼대표팀은 아르헨티나와의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8-22로 승리했다. 이날 최종전에서 승리한 한국은 1승1무3패의 성적을 남기며 대회를 마감했다.

높이뛰기 유망주 우상혁(20·서천군청)은 한국선수론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섰지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우상혁은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6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체 44명 중 상위 12명에 들어가 2m31 이상을 기록해야만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우상혁은 1996애틀랜타올림픽에서 8위를 기록한 이진택(은퇴)에 이어 20년 만에 이종목 결승행을 노렸다.

하지만 2m31에 다다르지 못했고, 전체 순위에서 22위를 기록해 예선에서 탈락했다. 함께 출전한 윤승현(22·한국체대)은 2m17을 기록하는데 그쳐 41위로 조기 탈락했다.

익산고 검도부, 전국대회 '준우승'

익산고(교장 임홍락) 검도부가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의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충남 청양에서 개최된 '제45회 8.15 광복절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검도대회'에 출전한 익산 검도부는 제주고, 광주 서석고, 경기 장곡고, 경남 가포고, 경기 퇴계원고를 차례로 물리치며 결승까지 올랐다.

아쉽게 결승에서 고등부 최강팀으로 불리는 인천 서원고에게 1대2로 아쉽게 석패했지만 의미 있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민근 기자

강정호, 2경기 연속 홈런 '왕'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29)가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다.

강정호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루수 겸 5번타자로 선발출전,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1안타 1타점 2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전날 50일 만에 손맛을 본 홈런 강정호는 2경기 연속 홈런 포를 쏘아올려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홈런은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나왔다. 9회 선두타자로 등장한 강정호는 다저스 6번째 투수 조시 필츠의 94.4마일(152km)짜리 직구를 통타해 시즌 13호 좌중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비거리 139m짜리 대형 홈런포였다.

시즌 타율은 0.238로 소폭 올랐고, 타점과 득점은 각각 1개, 2개를 보태 시즌 40타점, 27득점체를 올렸다.

피츠버그는 16일타를 터뜨려 11-3으로 완승을 거뒀다. 시즌 59승56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에 머물렀다. /김민근 기자

군산CC, 'NS홈쇼핑 전북 오픈' 개최

군산컨트리클럽(대표이사 박성주 이하 군산CC)이 NS홈쇼핑(대표이사 도상철)과 함께 'NS홈쇼핑 군산CC 전북 오픈' 대회를 개최한다.

'NS홈쇼핑 군산CC 전북 오픈'은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개최될 예정이며 총상금 5억원 규모로 군산컨트리클럽 리드, 레이코코스(파2·7144야드)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희무, 이하 KPGA)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KPGA 빌딩에서 NS홈쇼핑(대표이사 도상철), 군산CC(대표이사 박성주)와 대회 개최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KPGA 양희무 회장과 NS홈쇼핑 조성호 전무, 군산컨트리클럽 서종현 전무 등이 참석했다.

군산CC 서종현 전무는 "KPGA 프로(준회원)와 KPGA 투어 프로(정회원) 선발전을 비롯해 KPGA 프런티어투어와 KPGA 챌린지투어가 열리고 있는 군산CC는 한국남자프로골프의 터전이다"며 "2009년 '동부화재 프로미배 군산CC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총 6번의 KPGA 코리아투어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S홈쇼핑 군산CC 전북 오픈'은 KPGA 코리아투어 주관방송사인 JTBC 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되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군산=문정곤 기자



'9초81' 볼트, 사상 첫 올림픽 남자 100m 3연패

인간 번개'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육상 남자 100m 3연패를 달성했다.

볼트는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8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 런던올림픽

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건 볼트는 올림픽 남자 100m 3연패를 달성했다.

남녀를 통틀어 올림픽 육상 100m에서 3연패를 달성한 것은 볼트가 처음이다.

볼트를 제외하면 올림픽 남자 1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것은 '전설'로 일컬어지는 칼 루이스(미국)가 유일하다. 루이스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연달아 남자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100m에서도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3명 있었지만, 모두 3연패에는 실패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100m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딴 셀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30·자메이카)가 이번 올림픽에서 3연패를 노렸지만 동메달에 그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100m와 함께 단거리로 꼽히는 200m까지 살펴봐도 남녀를 통틀어 올림픽에서 3연패를 기록한 선수는 없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2연속 3관왕(100m·200m·400m 계주)에 오른 볼트는 개인 통산 7번째 금메달을 수집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후원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